2010. 8. 2 제244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8. 2 제244호

산업 · 경제

1. 장기실업자에게 실업수당 대신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독일)
2. '취업연수생 계획' 확대 시행 (영국 리버풀市)
3.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지원 (독일)

건강 · 복지

4.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센터 설립 (런던)
5. 고령자 거주안정 계획 수립 (도쿄)

행정 · 재정

6. 市 직원 최저·최고 임금 격차를 10배 이하로 제한 (런던)

도시환경

7. 물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 확인하는 자동측정시스템 개발 (뉴욕)
8. 버려진 운하 주변을 친환경적인 통학로로 복원 (영국 트래포드市)
9. 쓰레기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런던)
10. 도시가로에 있는 껌 제거 (런던)
11.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실시 (영국 리버풀市)

산 업 · 경 제

1. 장기실업자에게 실업수당 대신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독일)

❍ 독일연방 노동사회부는 장기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범사업에 착수함. 이 사업은 16만 명에 이르는 장기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임. 연방 노동사회부는 16개 연방주 197개 취업센터와 독일 전역에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센터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함.

- 이 프로젝트는 '행동단계'와 '공공근로 단계'로 이루어짐. 장기실업자는 2010년 7월 15일부터 6개월간 취업센터와 함께 취업을 위한 행동단계에 들어감. 이 단계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2011년 1월 15일부터 연방정부가 마련한 공공근로 3만 4000개 일자리에 배치되어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됨.
  - 연방정부의 의도는 실업자에게 취업 때까지 실업수당을 주며 집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 먼저 행동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것임. 연방정부는 일차적으로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알선할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취업 코치'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 각 취업센터가 실업자에게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림.

- 6개월간의 행동단계 동안 취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취업센터와 실업자 간에 합의를 도출함.
- 취업센터가 6개월간 일자리를 알선함. 이 단계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공공근로 단계가 시작됨. 실업자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대(對)관청 업무 대행, 병원 동행, 체육·레저시설에서의 교육훈련 보조, 공공기관 경비 보조, 급식소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함.
- 공공근로를 하는 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면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실업자는 정부로부터 매달 1080유로(약 167만 원)를,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실업자는 매달 720유로(약 112만 원)를 받게 됨.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음.
- 공공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실업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위해 개별적인 코칭이 진행됨. 취업 코치는 정기적으로 실업자를 만나 그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줌. 지역 노동시장에 적절한 일자리가 생기거나 실업자가 자신의 업무능력을 개선하면 취업 코치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알선해 줌.

- 연방 노동사회부는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에 총 13억 유로(약 2조 원)를 투입할 예정임.
  (www.bmas.de/portal/46740/2010__07__09__buergerarbeit.html)

2. '취업연수생 계획' 확대 시행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취업연수생이 다양한 기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받고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연수생 계획'을 확대 시행하기로 함.

- 이 계획은 취업연수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취업과 교육훈련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市,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학교,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임.
  - 계획 목표는 ① 청소년이 취업을 위해 잘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② 지역 청소년, 특히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며, ③ 학습·신체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취업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음.

- 市는 취업연수생이 일하는 직장이 대부분 육체노동이나 가족노동 관련 일자리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정업무 및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일자리에서 다른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을 확대 시행하게 되면 지역사회 기업과 단체 등이 취업연수생을 더 많이 고용하여 지도할 것으로 예상됨.
  - 市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고 연수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함. 젊은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직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강조함.

· 취업연수생은 향후 2년간 근로수당을 받게 됨. 2010년 10월부터 16세의 경우 시간당 3.64파운드(약 6700원), 21세의 경우 5.93파운드(약 1만 원)를 받을 수 있음.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087.asp)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시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제조회사 우대 추진 (일본)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기 위해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데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 시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제조회사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배출량 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을 할당하고 상한을 넘긴 기업은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배출량 감축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임.

· 배출량 상한을 높게 해주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임. 거래제도가 도입된 유럽연합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임.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을 촉진해 지구 온난화 방지와 경제성장을 꾀하고 거래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경제계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요미우리신문, 2010. 7. 9)

3.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 지원 (독일)

❍ 인터넷상 소비자보호는 경제와 과학 분야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미래 정책 분야임. 독일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는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이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2010년 7월 발표하고 9월 16일까지 인터넷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개 모집함.

- 인터넷 공간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인터넷 상거래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사기와 같은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음.
  - 인터넷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 혁신은 소비자뿐 아니라 온라인 경제 분야의 관심사이기도 함. 정보데이터 보호장치는 고객과의 안전한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조건임.

-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가 모집하는 프로젝트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혁신 기술임.
  - 연방정부가 추천하는 개발 프로젝트는 ① 소비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극대화하고, ②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③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데이터 무단복제 금지·삭제·유효기간 설정 기능 등으로 간편하게 막고, ④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이트를 쉽게 인식하도록 하며, ⑤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을 확대하고, ⑥ 바코드 안전성을 개선하며, ⑦ 신체 장애뿐 아니라 기술적인 장애도 포함해 인터넷 이용의 '배리어 프리'에 기여하는 연구 프로젝트임.

· 과학적인 수준, 계획의 성공가능성, 실용성, 혁신력, 경쟁력, 고용 창출 효과, 경제와 과학 분야 최신 연구결과와의 접목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해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함. 우수 프로젝트에는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보조기금이 지원될 예정임.

(www.bmelv.de/cln_182/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10/129-AI-Verbraucherschutz-im-Internet.html07)

디지털산업 분야 기업에 업무공간 제공 (영국 맨체스터市)

– 영국 맨체스터市는 샤프社 창고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디지털산업 분야 기업에 업무공간으로 제공하는 '샤프 프로젝트'(Sharp Project)를 추진함. 市는 이를 위해 서북부지역 발전청과 유럽지역 개발펀드와 협력하여 1650만 파운드(약 304억 원)를 투자함.

· 이 건물은 2011년 초에 완공될 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음. 市는 건물 주변에 이 분야 종사자를 위한 커뮤니티공간과 공용공간인 '겨울정원'도 조성할 방침임. 맨체스터 동부지역에 있는 24개 기업이 이곳으로 이주할 예정임.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디지털산업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manchester.gov.uk/news/article/5560/more_tenants_sign_up_for_the_sharp_project)

건 강 · 복 지

4.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센터 설립 (런던)

❍ 런던市는 일링區와 협력해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 센터를 2010년 4월 설립하고 여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축함. 이 기관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됨.

- 市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이 기관은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상담사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됨. 14세 이상 청소년도 참여해 강간, 어린이 성폭력, 매춘, 마약,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일대일 상담, 그룹 상담 등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성폭력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치료, 상담서비스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함.
  - 市는 성폭력이 대인기피증, 불면증, 식욕 감퇴, 자신감 상실, 자살 시도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이러한 후유증은 피해자 인생 전체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힘.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duchess-cornwall-joins-mayor-rape-crisis-service-visit)

5. 고령자 거주안정 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거주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택시책과 복지시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고령자 거주안정 계획을 수립함. 都는 2010년 8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함.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주택이나 양로원,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환경 정비 등이 필수적임. 都가 운영하는 양로원은 2009년 현재 7만 5955명을 수용하고, 지병 치료 등을 함께 하는 노인 의료시설은 2만 3988명을 수용하고 있음.
  - 都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1월 현재 256만 명이고, 이는 都 인구의 20.3%에 달함. 고령화율은 점점 높아져 2015년 24.2%, 2035년 30.7%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고령자 중 45%는 75세 이상 초고령자이며 그 중 약 30%는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임. 초고령자 역시 급속히 증가하여 2035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4%인 21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혼자 살거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고령자세대도 점점 늘어 2030년에는 약 90만 세대가 독신세대, 61만 세대가 노부부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30%가 고령자로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고령자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다른 연령층과 별 차이가 없는 185만 엔(약 2541만 원)이며 이 중 40%가 저소득세대에 속함.

-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양로원 공급을 확대함.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과 특별 양로원, 도시형 저가 양로원 공급에 역점을 둠.

- 고령자 입주 지원 서비스를 향상해 노인이 손쉽게 신청·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노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홍보에 힘씀.
- 지역 차원에서 상담 및 생활 지원 서비스체계를 구축함. 이를 위해 폐교가 된 학교시설 등 공유지를 이용하여 노인 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함.
- 고령자세대 60%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고령자가 가진 자산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 주택금융 지원기구는 고령자가 살기 편하고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한 구조로 바꿔 3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10/07/22k7d100.htm)

어린이 보호 전문가 채용 확대 (뉴욕)

– 뉴욕市는 증가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임. 어린이 보호 전문가는 ① 어린이 방치·학대 현장,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대상자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② 가정에서의 어린이 방치·학대 위험을 평가하며, ③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가족,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④ 어린이 대상 범죄사건에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영·유아 보육학, 범죄학, 간호학, 문화인류학 등 유관 분야 전공자가 채용대상이 되며 금지약물을 복용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을 구사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로 채용됨.

(www.nyc.gov/html/acs/html/about/work_cps.shtml)

6. 市 직원 최저·최고 임금 격차를 10배 이하로 제한 (런던)

❍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공공부문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런던市 의회가 市 직원 최저·최고 임금 격차를 20배 이하로 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10배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함.

- 중앙정부도 저임금 계약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고임금 고위직 공무원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市의회의 이번 결정은 임금 격차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일반 기업체 연봉보다는 낮지만 경제 위기로 국가 및 지방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더하는 고소득 공무원의 월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市 직원 최저 임금은 연간 1만 3577파운드(약 2500만 원)인데 임금 격차를 10배로 제한하면 최고 임금은 13만 5770파운드(약 2억 5000만 원)가 됨. 런던시장은 최저 임금의 10.6배가 되는 연봉을 받고 있고 런던교통공사 사장은 최저 임금의 20배 이상을 받음.

-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위탁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평등한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약물 중독, 교육, 범죄, 비만, 신뢰도,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폭력, 청소년 출산, 어린이 복지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남.

(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0/jun/16/london-assembly-closes-wage-gap)

도 시 환 경

7. 물 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 확인하는 자동측정시스템 개발 (뉴욕)

❍ 뉴욕市는 물 절약을 위해 상수도 사용량과 요금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물 소비량 자동측정시스템은 하루 네 번 자동으로 물 소비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계산하게 만들어짐.

- 市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① 지속적으로 유관 기술자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② 도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며, ③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市는 이처럼 도시 공공서비스에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 시스템은 전력 소모량이 적고 크기가 작은 트랜스미터를 개별 물 사용량 측정기에 연결하여 6시간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수동으로 수도계량기를 확인할 때와 비교할 때 비용을 연간 4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음. 정보 송·수신은 市 정보통신·기술국에서 관리함.

- 이 시스템은 區 단위로 설치되었는데 퀸즈區는 2010년 6월, 맨해튼區는 8월, 브루클린區는 9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됨. 市는 2012년 1월까지 시민 전체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측정기를 매주 7000~9000개 설치함. 설치비용은 市가 지원함.
  - 현재 수돗물 소비자 83만 4000여 명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이 시스템으로 실시간 요금현황, 누적 사용량과 요금 등을 확인하고 있음. 몇몇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매시간 물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주·월·연간 단위 사용요금 현황도 조회할 수 있음.

(www.nyc.gov/html/dep/html/water_and_sewer_bills/amr_learn_more.shtml)

인근 자치구가 상호 협력해 '노약자 콜버스 서비스' 개선 (런던)

– 런던 남부에 위치한 리치먼드區와 킹스턴區는 노약자를 위한 '콜버스 서비스'를 공동 운영하는 기관을 설립함.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무료 콜버스 제도로 등록제로 운영됨. 그동안 런던교통공사와 자치구가 함께 운영해왔는데 자치구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런던교통공사는 자치구 경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기존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킹스턴區에 등록된 이용자 수는 625명이며 2009년 한 해 동안 이용률이 21% 증가하는 등 수요가 늘고 있음. 새로 설립된 기관에서는 그동안 이용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보기 서비스를 매주 화·수요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음. 이 기관은 이용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6141.aspx)

8. 버려진 운하 주변을 친환경적인 통학로로 복원 (영국 트래포드市)

❍ 최근 들어 영국운하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버려진 운하 주변을 정비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트래포드市의 경우에도 복원사업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함.

- 트래포드市 구간은 맨체스터 대(大)권역 내에서 복원되고 있는 다른 구간과 만나게 되며 전체 약 64㎞의 친환경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임. 이번 사업 전체에 투입되는 총비용 52만 파운드(약 9억 5700만 원)는 市, 운하 소유주, 브리지 운하 트러스트 등이 공동 부담함.
  - 트래포드市 세일 브리지-마스랜드 브리지 구간 공사가 끝나면 운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통학로가 19.3㎞ 정도 조성됨. 안전 확보와 홍보 등은 市, 지역 민간단체, 인근 초등·중학교가 함께 담당함.
-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운하는 기차, 자동차, 항공기 등 대체 운송수단에 뒤처져 일부만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질오염과 악취가 심해지고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함. 또한 지역 주민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이 일대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음.
  - 트래포드 지역에 있는 운하의 경우 건설된 지 250년이 지난 시설임. 市는 복원이 완료되면 수백 년 동안 버려졌던 운하를 연간 50만 명이 다시 이용할 것으로 기대함.

(www.trafford.gov.uk/news/press/details.asp?ID=2040)

9. 쓰레기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 (런던)

❍ '런던 쓰레기 재활용위원회'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800만 파운드(약 147억 원)를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6만 5000톤이 매년 매립되는 상황에서 매립비용과 매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임.

- 런던 재활용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됨. 이 클러스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각 지역 주거지와 업무지역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됨.
  - 재활용 네트워크는 사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집, 보관, 수리, 판매하는 단계를 거침. 수집하는 대상품목은 중고가구, 책, 카펫, 자전거, 요리기구, 냉장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시행 첫 2년 동안은 매립되는 쓰레기 중 1만 7000톤을 재활용하는 계획을 세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전화와 웹사이트도 만듦. 市는 2015년까지 매년 쓰레기 100만 톤을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수백 명의 시민을 채용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클러스터 1호는 서부강변 쓰레기위원회가 설립함. 이 위원회는 런던 서부 햄머스미스·풀햄, 완즈워스, 켄싱턴·첼시 등의 자치구 쓰레기를 관리함. 위원회는 이들 자치구와 커뮤니티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재활용 워크숍을 열거나 재활용 관련 교육을 실시함.

- 런던 쓰레기 재활용위원회는 '재활용 런던' 캠페인을 벌이는 기관에도 자금을 지원함. ① 중고가구나 가전제품을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자선단체, ② 사용 가능한 건축자재를 재판매하는 기관, ③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재분배하는 기관, ④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애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활동을 보조함.

  · 위원회는 사용 가능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제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힘. 또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매립량도 줄일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강조함. 위원회는 재활용 인프라 조성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10. 도시가로에 있는 껌 제거 (런던)

❍ 런던市는 도시가로 '껌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는 2012년 올림픽을 위해 깨끗한 런던을 만들기 위함임. 市는 최근 껌 제조 및 제거회사, 자치구, 여러 유관기관 등과 함께 껌 공해 관련 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 가로에 버려진 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껌을 버리는 시민의 행동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껌을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함.

- 市는 도시가로에 붙어있는 껌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를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2012년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껌을 제거하는 동시에 손쉽게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이를 위해 市는 자치구, 영국 농촌보호협회, '깨끗한 영국' 등과 함께 런던 지하철에서 껌을 쉽게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 방안, 런던 정화 캠페인 등을 시행함.

- 껌을 그냥 두면 5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침. 런던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의 질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시민 20%가 껌 공해를 지적함.
- 런던 가로에 있는 껌을 제거하는 데 매년 1000만 파운드(약 184억 원)가 소요됨. 껌 하나를 제거하는 데에는 50펜스(약 900원)에서 2파운드(약 3600원) 정도 듦.

- 市는 크로이던 중심상업지구에서 껌 400만 개를 제거하고 껌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거리에 버려지는 껌을 38% 정도 줄임. 가로 정화작업을 담당하는 뉴 웨스트 엔드社는 120만 파운드(약 22억 원)를 투자하여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껌을 제거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11.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실시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공급전력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그리드(SmartGrid)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함. 최첨단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임. 市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번 사업계획은 '머지 파트너십'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에서 기획함. 市는 EA 테크놀로지 컨설팅社, 스코틀랜드 전력에너지 네트워크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함.
  - 시범사업은 市 남부지역의 기업, 학교, 주거단지 등에서 실시됨. 2010년 여름에 시작해 향후 2년간 추진될 예정임. 市는 향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요금을 낮출 것으로 기대해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함.

- 이번 시범사업은 영국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것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기술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고 전력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전력공급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전력수급 불균형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083.asp)